

# 서간의 형식과 고백의 형식\*

- 1910년대 고백담론과 관련하여

이 재 봉\*

차 례

- |  |  |
|--|--|
| I. 들어가면서<br>II. 근대 지식인과 서간의 재발견<br>1. 편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br>2. 근대 '국가'와 편지, 구체화되는 상상의 공동체 | III. 서간과 소설형식, 근대 문학에서 고백의 특징<br>1. 편지라는 고백담론, 근대 지식인의 내면 풍경<br>2. 서간과 소설, 주체의 발견<br>IV. 맺음말 |
|--|--|

## I. 들어가면서

서구의 문학에서 서간 형식이 근대문학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 사무엘 리처드슨(Samuel Richardson)의 『패밀리(Pamela)』가 서간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후의 소설사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서간체 소설'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 등<sup>1)</sup>은 서구 문학사에서 서간

\* 본 연구는 2003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윤수영, 『한국근대 서간체소설 연구-형성과 구조변이를 중심으로』(이화여대 박사

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언 와트(Ian Watt) 역시 근대소설의 발생에서 리처드슨과 그의 작품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sup>2)</sup>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서간’이 연구주제로 대두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간체소설이라 하여 일인칭 소설의 중요한 변이 형태로 파악한 이재선 교수의 연구나 ‘고백’이라는 제도와 연결시킨 김윤식 교수의 연구를 비롯하여 윤수영, 하갑룡, 노지승, 황국명, 우정권<sup>3)</sup> 등의 연구는 소설 속에서 차지하는 ‘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최근 권보드래, 천정환<sup>4)</sup>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편제도나 독서의 경향과 연관시킨 연구까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서간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나 의미 등이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왔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대체로 1920년대나 그 이후의 ‘서간’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 근대의 우편제도가 도입된 후 ‘서간’이 근대적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정착되어간 1910년대를 전후한 상황에는 크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1920년대 들어 모범 서간문집이 발간되어 수많은 독자들의 필독서가 되다시피 했고 본격적인 의미의 서간체소설이 등장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1910년대 ‘서간’이 근대적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정착했

논문, 1990), 1-2쪽.

- 2) Ian Watt,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열린책들, 1988).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이언 와트는 5, 6, 7장을 리처드슨에 할애하고 있다.
- 3)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일조각, 1975)  
 김윤식, 『염상섭연구』(서울대출판부, 1987)  
 김윤식, 『김동인연구』(민음사, 1987)  
 윤수영, 「한국근대 서간체소설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하갑룡, 「1920년대 서간체소설 연구」(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 연구』2(2002)  
 황국명, 「한국 현대 서간체소설의 이념적 특성」, 『한국현대소설과 서사전략』(세종출판사, 2004)
- 4)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푸른역사, 2003)

며, 또한 근대의 중요한 특징인 ‘고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근대 주체의 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초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글의 관심은 ‘서간’이라는 글쓰기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허구적 양식을 획득하지 못한 서간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또 서간이 한편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작품 속에 삽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글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간’이 근대 이후 새롭게 발견되는 글쓰기 양식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은 근대의 ‘고백’담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1910년대 문학적 상황에서 ‘편지’라는 글쓰기 양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목표이다. 물론 1910년대 서간형식이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맥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 II. 근대 지식인과 서간의 재발견

### 1. 편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편지는 아주 오래된 사적(私的)인 글쓰기 양식이다. 물론 애초에는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부녀자 계층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때의 내용들은 대개 사적(私的)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대부의 편지를 모아놓은 자료를 보면 가족이나 친지에게 주로 안부를 묻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sup>5)</sup> 조선시대 소설

5) 물론 조선시대의 편지가 모두 사적(私的)이고 내밀한 개인적 담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달수단이 거의 한정되어 있던 시기의 편지는 대부분이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조선 명종 때 이항(李恒, 1499~1576)은 형에게 찾아가 문안하지 못한 미안함을 편지에 적어 보내고 있고,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은 아들 둘과 조카 둘이 과거에서 답안지로 쓸 종이를 친지에게 부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돈영(李敦榮, 1801~1884)은 집안 어른과 이웃의

에 삽입된 편지 역시 이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편지가 서사의 진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sup>6)</sup>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우편제도가 도입되는 근대에 이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통신 기관인 우정사(郵政司)가 설치된 것은 1882년 12월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84년에는 고종의 전교로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서울(한성)과 인천에 설치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근대적 통신제도가 도입된다. 그렇지만 홍영식 등 개화파의 주도로 시행된 이 제도는 갑신정변(1884년)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우정사가 폐지되고 1885년 전보총국(電報總局), 1893년 전우총국(電郵總局)을 거쳐 1895년 농상공부 통신국의 우체과(郵遞課)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1899년에는 전국적인 체신망이 형성되기에 이른다.<sup>7)</sup>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편제도가 시행된 초기의 경우 이를 통한 통신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우편제도를 통한 편지의 발신과 수신은 근대의 제도를 이해하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계층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편 요금<sup>8)</sup> 또한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고 인편을 통한 송달 등의 전통적 방식이 그들에게 더 익숙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있고 박규수(朴珪壽, 1807~1877) 역시 서귀공(西歸公)의 후손 이총병(李總兵)으로부터 『서귀유고(西歸遺藁)』를 받은 데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전하고 있다. 이상, 『강운 최승호 기증문화재③, 편지-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순천대학교 박물관, 2003), 8, 9, 77, 87쪽 참조. 이 책에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시기 사대부들의 편지들을 다양하게 모아놓고 있는데 대개가 안부를 묻는 내용이거나 부고를 받고 조문하는 내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6) 경일남은 고전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서간의 기능과 양상을 살피고 있다. 여기서 그는 서간의 수용양상(수용형태-사연생략형, 사연요약형, 사연인용형/개입양상-송달방식, 개입구조)과 활용실태(연정서, 위서, 유서, 밀서, 원정서, 통지서) 및 문학적 기능을 세밀하게 밝히고 있다. 경일남, 「고전소설에 삽입된 서간의 양상과 기능」, 『고전소설과 삽입문예양식』(역락, 2002). 그런데 이 논문에서 소개된 서간의 내용 역시 발신자와 수신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 7) 이상호 편저, 『近代郵政史와 郵票』(全日實業出版局, 1994), 41-65쪽 여기저기.
- 8) 당시의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이상호, 권보드래 앞의 책 및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9-오백년 왕국의 종말』(한길사, 2003), 334-349쪽 참조.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편제도가 시작되던 시기의 편지 발송과 수신은 거의 근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듯하다. 물론 편지가 근대 지식인의 전유물은 아니었겠지만 이들이 초기 우편 제도의 중요한 이용자였고 따라서 편지의 목적에 따라 계몽적 성격이 자연스레 드러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문헌에서 편지의 성격이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①이월 이십팔일 독립협회 회원들이 외부대신 서리 민중목씨의게 혼 편지 사연을 좌에 기재하노라. 경계즈는 곳 드른 즉 절영도 싸에 아라샤 사람이 석탄고를 건축하려 호야 팔만 미돌(평방미터-인용자)을 청구한다 하니 임의 빌너 주었는지 아즉 빌너주지 아니 하였는지 장츠 빌너주고져 호는지 만일 빌닐 경우에는 일본 사람의게 잠간 빌너 준 합동 조판을 의빙호여 호라는지 아라샤 사람의 쇼청디로 빌너 주는지 잠간 빌너 주는지 영영 주는지 빌닐 때에 정부 회의를 지니고 하는지 외부에서든 홀노 결단호야 인을 찍는지 본회 회원들도 다 이 대한 신민인즉 이 일에 대호야 부득불 참례호여 물을 권이 잇기로 이에 앙포호니 조량호 후에 즉각 니로 곳 회담호라고 호였는디 이 편지 총디위원은 리상지, 정교, 조한우 삼씨로 회중에서 턱당호였더라.<sup>9)</sup>

- 9) 『독립신문』, 1898년, 3월 1일, 잡보. 이와 연관되어 있는 기사가 『협성회회보』에도 여러 군데 나온다. 다음 기사를 보자. “이번에 외부대신 민중목씨가 절영도 빌너주라는 편지호 써에 편지에 외부인(外部印-인용자)을 찍어 보낼터인디 외부관인 당재유씨가 인체를 가지고 간고로 그 스스로이 절영도를 허락호는 편지에 외부인은 못 찍어 보니었다더라.”(『협성회회보』, 제1권 제10호, 1898년 3월 5일.) 이는 ‘배재학당’에서 발간한 『협성회회보』와 『미일신문』(주간이던 『협성회회보』를 일간으로 전환하면서 제호가 『미일신문』으로 바뀌게 된다)이 『독립신문』에 많은 부분을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친러파인 민중목 외부대신이 아라샤에 사사로이 절영도 땅을 빌려주려 한 것을 외부의 관원들이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교가 쓴 『대한계년사』에도 이와 관계된 내용들이 나타나고(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주, 『대한계년사3』(소명출판, 2004), 28-37쪽 참조) 『독립신문』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독립신문』, 1898년 2월 26일 잡보, 같은 해 3월 1일 잡보, 3월 3일 잡보, 3월 10일 논설 등 참조. 여기에 따르면 외부대신 민중목은 자신의 부하 직원인 외부협관 ‘유기환’을 회유하여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유기환의 거부로 실패하고 외부에 돌아가서 편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민중목의 일을 불가하다고 여긴 모든 사람이 나가버렸다고 한다. 다만 ‘황주사’라는 인물의 그의 편지를 대필했으나 외부의 공식적인 편지 양식도 이용하지 못하고 관인도 없이 편지를 보내게 된다. 결국 외부의 관

②이월 이십팔일 외부대신 서리 민종목씨가 절영도 일절노 독립협회 회원제씨의게 혼 편지 답장을 좌에 기지호노라. 상년 팔월에 아라샤 공사 위피가 연호야 조희로 써 절영도에 석탄고 기지를 지정하여 둘나 청호기에-중 략-일본 석탄고 빌너 주던 전례대로 시행하였신즉 장리에 합동홍 조관은 다르고 혼 가질 것이 업슬듯하고 미돌 일관은 그 셔음 안에 빅성이 만히 사니 그 사는 빅성이 성업을 전절케 하여지이다라고 편지로 자세히 말 하였스니 미돌 감슈호기는 즈연히 타완될지라. 요스이 팔만 미돌을 영위 준다는 말은 공론이 분등하나 지약 여러 대인네는 시국을 못당히 작망하시리니 불은 건디 듯허히 용서 호시오. 월미도와 절영도에 석탄고 터를 빌니기는 임의해가 오리기에 근년 이리에 두 차례를 전례대로 혼 것이 비록 편벽됨이 업게 호즈는디 낫스나 막는 방침은 복(僕-인용자)이 능히 못호였스니 죄를 알고 죄를 아나이다 하였더라.<sup>10)</sup>

인용문 ①과 ②는 독립협회 회원과 당시 외부대신 민종목 사이에 오간 편지와 답장이다. 여기서 그들은 절영도의 땅 팔만 평방미터를 아라샤의 석탄고로 빌려주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석탄고 문제는 단지 아라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선에서는 절영도 땅의 일부를 이미 일본에 석탄고로 내 주고 있었고 이외에도 월미도 등도 열강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라샤가 요구하는 절영도의 석탄고는 당시 열강들이 요구하던 조차지 문제, 나아가 조선의 앞날까지 깊숙이 연관된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전례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외부대신 민종목의 답장에 독립협회 회원들은, ‘다른 나라이 엇지 또 혼 이제 날의 일본과 아라샤에 허락하여 빌너 주는 리익을 고르게 입고져’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온 나라 토디을 츠데로 다른 나라 사름의게 허락하여 빌니기에 겨를치 못’<sup>11)</sup>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우편제도가 도입된 초기의 편지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또는 ‘국가’와 관련된 공적 담론이 주된

---

원들이 외부대신의 편지를 국가의 공식적인 문건이 아닌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 어버린 셈이다 (인용은 원문을 따르되, 띄어쓰기만 오늘에 맞게 고쳤다. 이하 모두 마찬가지다).

10) 『독립신문』, 1898년 3월 5일, 잡보.

11) 『독립신문』, 1898년 3월 10일 논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대한계년사』3, 32-35 쪽에도 있다.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독립협회 회원들은 편지를 보낼 때, 함께 모여 편지 내용을 논의하고 한두 사람이 기초한 후 이를 다시 검토하여 최종 내용을 확정<sup>12)</sup>한다. 이런 모습은 우편제도 도입 초기의 편지가 공적 담론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들 편지가 근대적 공공영역인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그 공적인 성격은 더욱 강화된다. 공적 여론을 환기하는 기능으로 편지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편지의 이런 기능은 조선시대의 상소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이들은 국가적인 문제를 담아 이를 상소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한다.<sup>14)</sup> 그러나 상소와 편지는 뚜렷한 대조점이 있다. 즉 상소의 독자는 ‘군주’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내용도 군주의 도리나 국가의 권리 등에 한정되고 반드시 충성의 맹세가 덧붙는다. 그러나 편지는 비록 독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상소보다는 확산될 여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근대의 모든 담론이 망라된다. 그래서 편지는 공적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소보다는 훨씬 많이 지니게 되는 것이다.

12) 다음을 보자. ‘이때 러시아 공사(公使) 스페이에르(Alexis Speyer, 士貝耶)가 절영도를 조차하여 석탄창고를 짓고자 했다. 2월 27일 독립협회 회원들이 독립관(獨立館)에서 회의를 열었다.-중략-여러 회원들이 모두 박수 갈채를 보내고, 이에 정교에게 편지를 지어 외부대신 서리 민종묵(閔種默)에게 질문하도록 했다.’(『대한계년사』3, 28-29쪽) ‘이 편지 총디위원은 윤치호, 박치훈, 최경식 삼씨라더라.’(『독립신문』, 1898년 3월 10일 논설)

13) 『독립신문』 1898년 3월 10일의 논설에서는 “대한독립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혀 공론하고 외부대신과 탁지부대신과 정부 모든 대신네에게 호여 본넨 모든 편지 초를 차례로 좌에 기지호노니 **전국 일천이백만 명 동포 형제들은 자셰히 들 보시오.**”(강조-인용자)하여 이와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14) 다음을 보자. ‘독립협회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혀 지금 황상 폐하께서 위국위민 혼는 신자가 업는 고로 주주독립 권리를 놀마다 일호사 병권과 전곡권과 관인 출척호는 권리를 다 외인의게 썩기심을 분탄히 너혀 회원들이 윤치호씨의 동의로 상소호고 독립협회 회원들은 황상 폐하와 대한 주주독립권리를 위호야 목숨이라도 바치겠노라고 밍서호는 스연으로’(『독립신문』, 1898년 2월 22일 잡보). 이 상소의 내용은 다음호에 실려 있다. ‘독립협회 회원들의 상소 소본을 좌에 기지하노라. 신등은 썩 호되 나라이 나라됨이 두 가지가 잇스니-중략-요스이 나라 형세를 보건디 못못 급급 업업호야 못 못 빙 가지 베프러 놀니는 것이 백성의 불움을 크게 억이논지라. 스스로 서는 것으로 말습호오면 지물 정사는 못당히 남의게 사양치 아니호는 것이어늘 남의게 사양호여 주며 군사의 권은 못당히 스스로 잡을 것이어늘 남이 잡게 호야’(『독립신문』, 1898년 이월 24일 논설).

이런 현상은 편지를 통한 독자투고에서도 마찬가지다. 편지는 당시 신문에 자신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는 유력한 형식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두 776회 발행된 『독립신문』에는 540회의 투고기사가 게재<sup>15)</sup>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독립신문』은 창간호 첫머리의 광고란에서부터 독자의 편지를 유도하고 있다. ‘누구든지 무리볼 말이 잇든지 세상 사람의게 하고 스분 말’이 있거나 ‘신문에 낼 만흔 말’<sup>16)</sup>은 편지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협성회회보』에는 논설을 적어 보낼 때에는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실린다.<sup>17)</sup> 물론 이는 당시 신문사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사’에 당시 근무했던 사람이 인쇄공 여덟 명까지 포함하여 열두 명 내외였고 기자로서 직접 취재한 사람은 두 명이었던 사실<sup>18)</sup>때문에 독자의 제보가 신문 제작의 필수 요소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1896년 10월까지의 단 한번도 독자투고문이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1897년 180 건, 1898년 198 건의 투고가 실렸고 1898년 이후 논설란에 급격히 투고기사가 증가<sup>19)</sup>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근대의 우편제도가 전국적 체제를 갖추던 시기에 이르러 독자의 투고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20)</sup>

15)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충남대 박사논문, 1996), 7쪽.

16)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광고.

17) ‘누구시든지 학문상에 유요흔 글을 지여 보니시면 우리 회보에 기지하겠습는이다’(『협성회회보』, 제1권 제5호와 6호(1898년 1월 30일, 2월 5일)), ‘누구시든지 논설을 지여 보니시대에 국문으로 쓰고 거주와 성명을 자세히 적어 보니시면 본회보에 기지히되 만일 성명니기를 원치 아니하면 성명은 쓰지 안코 글만 기지하겠소’(『협성회회보』, 제1권 제7호, 8호, 9호, 1898년 2월 12일, 2월 19일, 2월 26일). 실제로 『협성회회보』 제11호(3월 12일)의 논설은 ‘오공선’, 12호(3월 19일)에는 ‘니승만’, 13호(3월 26일)에는 ‘홍영후’, 14호(4월 2일)에는 ‘김만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은 독자투고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18) 서순화, 앞의 논문, 12쪽.

19) 같은 글, 13-16쪽.

20) 물론 독자의 투고가 모두 편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의 신문사는 독자들이 글을 신문사에 보내는 ‘투합통’을 운영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문사 근처의 사람들은 편지보다 이 투합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투합통을 우체통으로 오인한 사람도 있어 웃음을 머금게 한다. ‘엇더흔

물론 학생을 비롯한 개화 지식인들만 신문사에 투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빅성’으로 지칭되던 일반 대중들이 개화지식인보다 더 많은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고 있다. 『독립신문』의 창간에서부터 폐간에 이르는 시기(1896년~1899년)의 투고자 계층별 분포는 ‘백성’ 260건(48.1%), ‘개화지식인’ 125건(23.2%), ‘하급관리’ 63건(11.8%), ‘고급관리’ 27건(5.0%), ‘학도’ 13건(2.4%), ‘외국인, 국외 거주자, 종교인, 선비’가 각각 12건(각 2.2%)로 나타나 있다.<sup>21)</sup> 이렇게 보면 일반 ‘빅성’들과 학도를 포함한 개화지식인이 신문사의 독자투고를 거의 전담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편지를 보낸 ‘빅성’이 말 그대로의 백성이라 보기는 어렵다.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겠고 신문과 우편이라는 근대의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빅성’이라 명기된 투고자 역시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sup>22)</sup>

그런데 ‘빅성’이라 지칭된 사람들이 보낸 편지는 여타의 편지와 그 내용이 뚜렷이 구별된다. 그들의 편지는 주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관리들에게 강제 억탈을 당한 경우 또는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관리의 부정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sup>23)</sup> 백성들이 ‘우편 제도를 통해

사람이 본사 투함통에 인천항 룡동 사는 민감찰 선훈씨의게 가는 편지지에 우테표 두 장을 붙쳐 너엇스니 이는 그릇 우테통으로 알고 너흔 거시라. 이 편지 주인은 본사로 와서 차져 가시오.’(『미일신문』, 1898년 4월 22일, 잡보)

21) 서순화, 앞의 논문, 29쪽의 표 참조.

22) 실제로 길주의 ‘허설’이라는 인물이 『미일신문』으로 편지한 형식을 보면,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과 편지를 쓰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관리에게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정필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연을 편지로 신문사에 보내는 사람은 ‘허설’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아래의 각주 22) 참조.

23) 다음을 보자. ‘길주 사는 허설씨가 본군 민원스로 범부에 정훈 대기를 본사에 편지하였기로 좌에 기지하노라. 대법 빅성이 되어 관장을 걸어 정소함이 지극히 죄송호으나 질병이 심함미 부모를 부르는 거슨 텃디에 고연한 배라. 본군슈췌두현씨가 병신년 칠월에 도입흔 후로 장정에 업는 대미 삼십석과 소미 일천 일백륙십석과-중략-그 빅성들이 살 수 업는 정상을 관찰부에 정소하였더니 췌씨와 조순간이 되는 고로 결쳐 아니하여 슈미 범부로 올나와 정소호은즉 빅성이 관원을 문혁한 죄라하고 장민 정필국을 착수호옵고 지금것 지판을 아니하여 주오니 하향에 무고흔 빅성이 기한을 못 이기여 죽을 지경이라고’(『미일신문』,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은 1910년대까지 드물었'으며 '편지라는 소통 수단을 떠올리는 것은 '목숨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일'<sup>24)</sup>이었다면 백성들이 신문사에 보낸 편지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탄원서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반면 개화지식인들에게 '편지'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담아내는 근대의 새로운 글쓰기 양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편지의 내용 역시 공적 담론을 지향하고 있었다.

동심잡교 사는 우순동이론 으희가 우리 회보에 편지 하였는디 근일 신문을 보니 영, 아, 법, 덕이 청국을 분과하여 동양대경에 일이 만나호오니 우리나라도 청국과 갓치 위티호니 우리나라 신민들은 이재를 당호여 동심 합력하면 남의 나라에 슈치를 면할 터이오니 아모조록 우리도 일심호야 기명 진보호자 호엿더라.<sup>25)</sup>

이 기사에 나타나 있는 우순동은 '으희'로 표기되어 있고 편지의 내용이 개화 지식인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근대 학교의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위의 『민일신문』이 배재학당<sup>26)</sup> 학생들이 결성한 '협성회'에서 발행한 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아라사,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이 청국에 계속하여 조차지를 요구하던 상황과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는 편지를 신문사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당시 지식인들이 신문사에 보낸 글의 내용은 위와 같은 계몽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편지는 우편제도의 도입과 함께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소통 행위를 넘어 공적 담론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물론 조선 말기 이후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근대 지식인의 역할

1898년 4월 19일) 또 서순화의 앞의 논문에서도 백성들의 투고 목적이 고발과 탄원이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서순화, 앞의 논문, 33쪽의 표5.

24) 권보드래, 앞의 책, 125쪽.

25) 『협성회회보』, 제1권 제8호, 1898년 2월 19일, '니보'

26) '배재학당'의 이름은 '인재를 배양하라'는 뜻으로 고종이 지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9-오백년 왕국의 종말』(한길사, 2004), 237쪽.

이나 입지 등과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근대 ‘국가’와 편지, 구체화되는 상상의 공동체

1900년대 이후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편지는 일상의 영역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학지광』의 한 자료는 일본 유학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 간 일본 유학생 수는 1,600여 명에 이른다<sup>27)</sup>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특히 1904년 이후 유학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는 10여 개의 조선인 유학생 단체가 결성되고 있기도 하다.<sup>28)</sup> 이들이 근대 우편제도를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sup>29)</sup> 고향의 친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학생이 증대하고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학회지도 발간된다. 학회지 발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술 및 번역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sup>30)</sup> 여기서 ‘저술’이란 개인이 독자적으로 저서를 발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학회지에 글을 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시의 대표적인 글쓰기라 할 수 있는 논설이 일차적이겠지만 수필이나 일기, 서간 형식의 글도 목적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일 유학생 단체 중 가장 먼저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태극학회’(1905년 9월 15일, 동경)에서 발간한 『태극학보』에는 편지 형식의 글들을 찾아 볼 수 있다.<sup>31)</sup> 그런데 편지 형식의 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내밀한 사적 담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7) 『일본유학생사』, 『학지광』6, 11-13쪽 참조.

28) 김기주, 『한말 제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느티나무, 1993), 22-25쪽 참조.

29) 1920년대 초반 일본에 있던 팔봉 김기진과 국내의 회월 박영희가 주고 받았던 편지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30) 다음 구절이 특히 그렇다. ‘學暇를 利用호야는 各自 學習호는바 專門普通으로 論作之翻譯호야 我國同胞國民의 智識을 開發호는 一分의 助力이 되고져’ 『太極學報 發刊의 序』, 『太極學報』1.

31) 물론 『태극학보』에 편지 형식의 글만 실린 것은 아니다 수필과 같은 형태의 글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다.

某年月日부터 財政整理한다든 結果로 錢荒이 莫甚하여 日本借款 一千萬 圓하여다가 日本人들 居住하는 仁川港 等地에 水道敷設하기 國債 癖박 지고 人病 醫師도 無히데 獸疾까지 긋치겠다고 獸醫를 雇聘한다 무슨 고문 宴會 費라 무엇무엇 이렇게저런 長頭魚 그 소리 잘나 먹듯이 하여 今日은 市門에서 도 財路가 不通하여 여기 撤廳, 저기 廢店 日用 物品도 本國物은 至賤하고 外國物은 至貴하여 商路가 꼭 막히고 淸전이라도 돈 놀 處所는 外國人의게 被奪하여 엇던 집안에서는 錢을 보면 通姓이라 하는 時에 努勞僅僅히 米穀을 作錢한다 土庄을 賣渡하여 分分히 모은 돈을 汝—엇더케 虛費하느냐 假令 同伴의 被誘될 時에라도 汝의 情神만 收拾하였스면……무일 汝가 分明 國事를 조금도 不思想하는가 보다. 一昨年某月日에 閱趙 諸 忠臣의 殉節하신 일을 思量하거나 汝부터 工夫 잘못하면 將來 他人의 奴隸은 亡國은 滅種은 될 일을 思量하여 주렴.<sup>32)</sup>

(강조-인용자)

이 글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외국에 유학보낸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편지이다.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생각없이 돈을 허비할 뿐 아니라 낙제까지 했다는 소식에 절망하여 아들을 꾸짖고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이 편지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안부 편지처럼 전형적인 사신(私信)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의 내용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 본격화된 일제의 수탈, 여기저기 속출하는 폐업 상점, 아들의 유학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땅까지 팔아야 하는 부모의 입장 등 조선의 세세한 사정은 물론 공부를 잘못하면 개인적으로는 노예, 국가적으로는 망국, 인종적으로는 멸종밖에 길이 없다는 언급까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의 유학이 국가와 인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일깨움과 동시에 과거는 잊고 열심히 공부하여 ‘내 生前에 國家의 興復하는 거슬 目睹<sup>33)</sup>하게 하여달라는 당부의 말까지 덧붙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글은 평범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위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財政)’이나 ‘차관(借款)’ 등의 개념은 쉽게 쓸 수

32) 椒海, 『外國에 出學하는 親子의게(母親의 書簡)』, 『태극학보』12, 43-44쪽.

33) 같은 책, 44쪽.

있는 용어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편지는 ‘태극학회’ 회원 중의 한 사람이 당시 제일 유학생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어머니’라는 장치를 허구적으로 끌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같은 책에 실려 있는 「苦學生의 情形」이라는 글을 들 수 있다. 이 글에는 당시 조선 경제의 급박한 상황과 그로 인해 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언급되어 있고, ‘苦學生同盟趣旨書’까지 첨부되어 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학생 본연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인데 앞 편지와 내용 및 표현상의 유사한 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편지 또한 같은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태극학보』 17호에는 ‘椒海生’이라는 필명의 「美國에 留學하는 友人의 啓」라는 편지가 실려 있기도 하다. ‘椒海’와 ‘椒海生’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인물은 남성이라는 점<sup>34)</sup>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에서 인용한 편지는 친모의 편지가 아니라 근대 지식인의 글이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듯하다. 또한 이 편지에서의 수신인인 ‘친구’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다.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가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역시 허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위의 편지가 ‘문예’란에 실려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34) 이 편지는 대단히 엄숙한 어조로 미국에 유학생을 고무하고자 한다. 「驚異愉快의 感想이 果然 如何할가만은 이 快爽한 空氣 中에서라도 君의 最愛最重한 大韓現象을 回顧하라. 今日狀態는 如何하며 明日狀態는 如何하고. 此를 持하여 彼와 比較하면 政府는 如何하며 人民은 如何하며 文學技藝는 如何하며 農工商業은 如何하며 그 風俗의 汚隆은 如何하고. 此는 必也君의 胸襟을 蕩漾할 機味が 有ihil지니 이 胸襟을 更一層蹴起 하여 美洲人民의 盛昌, 安全, 自由, 幸福이 如此한 所以는 如何한 手段과 如何한 方針을 由편하여 然지하며, 我邦의 如此한 其事其理한가 何를 因함인지, 今에 我國으로써 美洲의 形勢를 作코져 하면 如何한 措處와 如何한 道理로써 行하여야 妥當할 거슬 到底히 深思熟慮할 경우에 至ihil지니」(『태극학보』17, 54쪽.) 이 편지는 한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앞 편지에 비해 한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는 허구적으로 설정된 편지의 발신인이 어떠한 인물인지,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의 문제가 고려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편지가 근대 지식인의 글쓰기 양식의 하나로 이미 자리잡았음을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허구적 성격을 획득할 만큼 편지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근대적 글쓰기 양식의 하나로 내면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일본에서는 우편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었고 조선 역시 1900년부터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되어 외국과의 서신 교환<sup>35)</sup>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이들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편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현실에서의 편지라는 글쓰기를 학회지 또는 잡지라는 근대의 공공영역으로 옮겨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편지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근대의 공공영역으로 옮겨오는 순간 ‘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면서도 잠재적인 독자층의 확대’<sup>36)</sup>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된다. 초해의 앞 편지에서 독자는 ‘친아들’로 특정되어 있지만 편지가 허구성을 획득하고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미 개인을 넘어 재일 유학생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전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부와 성공이 개인을 넘어 국가에까지 확대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공공영역에 발표된 편지는 이른바 ‘근대의 기획’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읽혀야 한다. 『태극학보』 창간호 강단(講壇)란의 첫 번째 글이 최석하의 「국가론」이라는 점<sup>37)</sup>, 그리고 교육과 계몽이 강조되는 글이 학회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위생이나 경찰 등의 근대적 담론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윤정원(尹貞媛)이라는 여성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말<sup>38)</sup>하고 있다는 점, 또 김낙영이라는 인물은 어린이를 호출<sup>39)</sup>하고

35) 이상호, 앞의 책, 72-73쪽.

36) 조현실, 『서한체 소설의 서술 책략』(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10쪽.

37) 물론 ‘국가’가 이 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개화기 국어 교과서의 제 1과는 대부분 ‘국가’로 장식되어 있다. 국어교과서에 속하는 『幼年必讀』은 제 1과 ‘나라 一’ 제 2과 ‘나라 二’, 제 3과 ‘우리 大韓 나라’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幼年必讀釋義』 역시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國民小學讀本』 제 1과는 ‘大朝鮮國’이다.

38) 윤정원, 「본국 제 형제미의계(奇書)」, 『태극학보』2, 38~41쪽. 이 외에도 윤정원의 글은 『태극학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 여성에 관련되어 있다.

39) 金洛泳, 「으히 기르논 방법」, 『태극학보』2, 35-38. 어린 아이에 관한 담론 역시

있다는 점 등이 시사하듯 편지 역시 이와 같은 담론의 틀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까닭에 초해의 인용된 편지에서 쓰이고 있는 ‘국민’이라는 용어 역시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이라는 용어 역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개화기의 교과서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 있고 1898년의 『미일신문』 창간호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니외국 시세형편과 국민에 유조한 말과 실적흔 소문을 많이 기재’<sup>40)</sup>하겠다는 데서 볼 수 있듯 ‘국민’이라는 용어는 이미 낯설지 않다. 물론 이 당시에는 ‘빅성’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끔 ‘인민’이라는 용어가 선택되기도 한다. 반면 『태극학보』에 이르면 ‘빅성’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편지란 ‘친아들’과 같은 구체적 독자를 상정하고 더욱 친숙한 어투<sup>41)</sup>로 접근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상상하게 한다. 그 결과 편지는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의 내밀한 내면을 넘어서는 근대의 글쓰기 양식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 Ⅲ. 서간과 소설형식, 근대 문학에서 고백의 특징

#### 1. 편지라는 고백담론, 근대 지식인의 내면 풍경

『학지광』이나 『청춘』에 이르면 편지 형식의 글들은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억은 『藝術的 生活』이라는 글을 ‘H’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고<sup>42)</sup> 이광수는 『동경에서 경성까지』<sup>43)</sup>라는 여행기를 역시 편지 형식으로

『태극학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미일신문』 제1권 제 1호 논설, 1898년 4월 9일.

41) 『태극학보』에 실린 대부분의 글들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초해의 위 편지는 거의 한글로 이루어져 있고 개념어 등만이 한자로 쓰여지고 있다. 여성이나 아이를 독자로 상정한 글 역시 거의 한글로 쓰여져 있다.

42) 『학지광』6, 60-62.

43) 『청춘』9, 73~80쪽.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편지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편지는 일상의 생활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여행의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편지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①東京 下宿구석에서 된장국에 노란 무쪽만 썰든 것보다는 엄청난 貴族의 生活이요. 反抗的 態度的 橫扛木이 胸中에 가로 찢치여 不時에 貴族의 生活을 하고 심혼 生覺도 업지 안소.

兄아, 이것을 滿足이라 하겠는가, 不滿足이라 하겠는가. 允復이 되고 四肢가 풀니니, 滿足치 안이함도 안이오만은 小滿足이 어찌 大滿足을 익이겠소. 나는 더 큰 不滿足을 가지고 이곳에 왔거든. -중략- 우리의 叢中에 「自我의 實現」과 「公共의 圖利」의 二大 思想에, 懷疑하는 態度를 往往 目睹한다 하얏소.-毋論 自我와 公共의 區別되는 界線이 엇의까지인지, 實現과 圖利의 明哲한 範圍가 엇의까지인지(原來도 嚴格한 說明은 업다 하오) 充實한 內容이 업고 輪廓의 生覺뿐인 나로서, 이러한 大問題를 口筆로 表示하기에는 躊躇를 免치 못하는 바오만은 나의게는 一便으로 躊躇를 打破하는 大膽이 있소.44)

## ②언니!

봄빛이 아름답다함도 꽃봉오리가 썩죽썩죽 나올 씨라든지 파르죽죽흔 버들잎히 척척 느려져 이따금 부는 輕風에 암전히 흔들흔들흔는 씨, 桃花 梨花가 滿發하야 완 世上이 우슴과 갓흔 그런 씨 말이지 오늘과 갓치 黑雲이 이리저리 물거며 黑風이 이리나 몬지 몽텅이가 압길을 탁탁 막아 精神을 츠릴 수 업는 이리흔 날에는 -중략- 우리의게도 急흔 디로 爲先 몇 가지 慾心을 가진 後라야 事業을 할 수 잇다오.

一은 朝鮮 女子도 스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쇼. 歷史上으로 보면 古代 希臘에서는 神話 中 最大 勢力을 가진 強흔 神은 쓰오리스는 男性이라 호고 그것헤 피시고 잇는 神 헬나는 女神이하 호엿쇼. 大學者로 有名흔 아리스토텔네스도 婦人을 卑劣히 待接호엿슬 썬外라 - 중략-일노 推理히 볼진디 女子의 本性的 理論 卽 心理의 作用에는 조곰도 男子와 다름이 업다. 日用的 職分에 至호야는 或 差別이 생길넌지도 모로켓다. 女子들이 썩벵이만 살지말고 靈魂이 잇슬지어다. 絶叫흔이 二十世紀 女子들의 무대요. 언니! 우리 朝鮮女子들도 이 舞臺上에 參席호 慾心을 가져야 할 줄 알아야오.45)

③나는 疲困흔 다리를 쉬이고저 적은 돌 우에 나의 몸을 실코 나의 집을 내려다보니 벌써 나의 집에는 불이 반씩반씩하더이다. 그럼으로 다시 京城

44) 崔承九, 「不滿足과 要求-鎌倉으로부터」, 『학지광』6, 74-75쪽.

45) C. W. 『雜感-K언니에게 與흔』, 『학지광』13, 65-68쪽.

一面을 보니 집집마다 반짝거리는 광명한 별을 가졌더이다. 나는 서늘한 저녁 바람을 깃분 마음으로 마즈며 하늘을 쳐다보았나이다. 그밖에 아랫洞內에서 소녀들의 「별 짜리 가세」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놀랐나이다. 왜? 나는 별 中에는 地球보다도 더 큰 것도 만타는 天文學地文學을 보는 체 한 일이 있는 緣故이외다. -중략- 사랑하는 K군

나는至今 나의 感想을 쓰고 窸마치고져 하나이다. 그런데 나는 이 無窮大의 宇宙間에 있는 太陽系를 想像하니 無窮大의 宇宙間에 있는 太陽系는 넓은 運動場 안에 적은 공, 아니! 大洋의 一粟 이외다. 다시 또 太陽系間에 있는 地球를 想像하여도 지구는 大段히 적은 空間을 占有하얏으며 世界地圖를 보면 우리 半島는 큰 북송아에 파괴똥만 하외다. 그러면 이 半島가 宇宙間에 幾何의 空間을 占有하얏느냐하면 漠漠한 大洋의 一滴水 갖고 우리 同胞 二天萬은 一滴水에 부튼 「싹테리아」들을 顯微鏡으로 보는 것 갖다 하나이다. 여기에 나의 秃筆을 쓰려오니 우리는 참 因緣이 깊고 密接하다 할 수 밧게 업다고 생각하나이다. 그런데 上帝는 糞屎라도 穀物의 肥料가 되는 重大한 使命을 주신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勿論 上帝의 큰 使命을 주셨다고 確信할 수 밧게 업나이다. 上帝는 八十餘 元素를 合하고 調和함으로 森羅萬象을 이루엿스니 우리를 여기에 돕도 合하고 調和하야 큰 使命 곳 우리의 民族性을 발휘하라 함인 줄 알겠나이다.<sup>46)</sup>

①은 여행기 형식의 편지이다. 이 편지는 ‘H’군을 수신자로 하여 4월 3일부터 6일 사이의 여섯 편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지의 앞 부분에서 자신의 절망과 번뇌를 내비치다가 그 원인이 ‘자아의 각성’과 ‘공공의 도리(圖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자아의 각성’과 ‘공공의 도리’가 불가분리의 개념이며 자아의 실현이 곧 공공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니체’의 개인주의가 강력한 독일을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절망과 번뇌 등의 내밀한 사적 담론, 이것이 당시 조선의 당면 문제 등의 공적 담론으로 확장되어 뒤섞이는 이러한 모습이 당시 편지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신자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은 이미 개인의 위치를 넘어 위와 같은 담론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기 마련이다. 편지라는 글쓰기가 잡지에 게재되는 순간 이같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더욱이 두디(T. Doody)는 ‘화자는 언제나 공동체를 향해 고백하고, 공

46) 『청춘』11, 특별현상문에 중, 京城府 八判洞 九十三番地 李載甲의 편지, 20-21쪽.

동체 속에서 자신을 깨달으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sup>47)</sup> 또한 이 시기가 국권 상실 이후 근대적 계몽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편지의 이와 같은 현상은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다.

②도 다르지 않다. 여기서 발신자인 '나'는 한때 일본에서 같이 유학했다 먼저 귀국하여 현재는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K언니'라는 인물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신 역시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같은 상황임을 고백한 후, 'K언니'가 처해 있는 환경에 동정과 위로를 나타내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발신자는 조선에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몫을 역설하기 위해 '편지' 형식을 빌어왔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또 이 글에서 그들의 상상력은 고대 희랍의 신화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중세의 기독교, 문예부흥시대까지 거침없이 이어진다. 나아가 호칭도 어느새 'K언니'에서 '여자들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 이는 '나'의 시선이 'K언니'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여성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K언니'라는 존재가 조선 여성을 보통명사화한 것이란 추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③은 『청춘』 11호의 '특별현상문예'에 현상공모에 입선한 편지이다. 이제 편지는 특별현상문예에 등장할 만큼 근대 지식인의 글쓰기 양식으로 굳어지고 아울러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여기서 '나'의 상상력은 우주적이다. 우리가 실제로 가깝다고 느끼는 금성이 지구에서 6천 5백만 리나 떨어져 있고 당시 가장 빠른 기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토성까지 도달하려면 3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우주는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 속의 작은 지구, 다시 거기에 파리동만 하게 붙어있는 조선반도, 거기에서 박테리아 같은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조선의 동포들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투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우리에게서 조선의 민족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큰 사명이 있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K군'은 어느 새 이천만 동포로 확장되어 있다.

이처럼 개인의 절망과 고민 등<sup>49)</sup>이 고백되면서 동시에 민족이나 국가 등의

47) Terrence, Doody, *Confession and Community in Novel*, 여기서는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 양식』(소명출판, 2004), 27쪽에서 재인용.

48) 이런 시각에서 보면 '서간체소설'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49) 이런 개인의 내면은 흔히 '병'으로 표상된다. 현상윤의 『뽕박』이라는 작품 '이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서간의 특징이다. 물론 서간은 사적이고 내밀한 소통행위이지만, 이것이 잡지나 학회지 등 공공영역에 등장하는 순간 공적 담론을 지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아울러 발신자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허구적 수법이 쉽사리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다. 또 그들이 고백하는 고뇌와 번민의 원인이 ‘근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의 수신자는 비록 특정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해도 유학생 집단이나 조선 여성, 나아가 전체 조선 민족으로 확장되어 더욱 특정화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 2. 서간과 소설, 주체의 발견

새롭게 발견된 ‘편지’라는 글쓰기 방식은 이제 소설 양식에도 쉽게 등장한다. 소설이 근대의 대표적인 예술장르이고 보면 다른 글쓰기 양식을 흡수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도 바라볼 때, 소설 속에 편지가 삽입되어 있거나 1920년대 들어 ‘서간체소설’이라는 장르가 형성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행로인지 모른다. 또 편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징은 ‘서간체소설’이나 소설 속에 삽입된 서간형식에도 그대로 이어져 1910년대 이후 서간체를 비롯한 고백 담론의 한 원형을 형성한다. 춘원의 『어린 벗에게』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황폐한 개인의 내면과 ‘김일련’이라는 여성과의 사랑, 여기에 덧붙여지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명감을 앞서 살펴 본 편지들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사랑하는 벗이여—

前番 平安하다는 便紙를 부친 後 사흘만에 病이 들었다가 오늘이야 겨우  
출입하게 되었나이다. 사람의 일이란 참 미지 못할 것이로소이다. 平安하다  
고 便紙 쓸 때에야 누라서 三日 後에 重病이 들 줄을 알았사오리잇가. 健康  
도 미들 수 업고 富貴도 미들 수 업고 人生 萬事에 미들 것이 하나도 업나  
이다. 生命인들 엇지 밋사오릿가. 이 便紙를 쓴 지 三日 後에 내가 죽을는진  
들 엇지 아오릿가. 古人이 人生을 朝露에 비긴 것이 참 맛당한가 하나이다.

---

은 병인가 보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의 ‘나’ 역시 병중에 있는 몸이라는 점 등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中에 오직 하나 미들 것이 精神的으로 同胞民族에게 善影響을 끼침이니 그리하면 내 몸은 죽어도 내 情神은 여러 同胞의 情神 속에 살아 그 生活을 管攝하고 또 그네의 子孫에게 傳하여 永遠히 生命을 保全할 수가 있는 것이로소이다. 孔子가 이리하여 永生하고 耶蘇와 釋迦가 이리하여 永生하고 여러 偉人과 國土와 學者가 이리하여 永生하고 詩人과 道士가 이리하여 永生하는가 하나이다.<sup>50)</sup>

전형적인 ‘서간체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소설에는 첫머리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개인적 고뇌와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적 담론이 뒤섞여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당시 근대 지식인들의 편지 양식의 일반적 특징에 그대로 부합한다. 또한 ‘나는 朝鮮人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뜻고 맛은 붓본 朝鮮人이로소이다.’<sup>51)</sup>는 구절에 이르르면 편지의 수신인은 ‘어린 벗’에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전 조선인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두 차원이 매개없이 뒤섞인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비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같은 비판은 오늘날 연구자의 시각일 뿐 당시 지식인들의 내면은 그런 착종(錯綜)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의 내면은 공적으로 열려 있는 고백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이 잡지 등의 공공영역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허구성을 획득하게 되고 ‘근대’의 담론에 포섭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 담론을 지향하는 근대 지식인의 욕망이 그리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 앞에는 식민지라는 조선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고 사회는 모순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그들의 내면은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은 추상적이기만 하다. 이 경우 그들의 시선은 불합리한 사회의 모습으로 향하기 십상이다. 1910년대 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서간의 내용이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兄님! 나는 不幸히 無識한 父母의 子息으로 啼ひ어나서 十九年 동안을 이 世上 것친 물결에 빠져 헤쳐거리다 怨恨을 머금고 只今 九泉으로 도라가

50)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9, 96쪽.

51) 같은 책, 105쪽.

는이다.

兄님! 世上에 스투으로 티히여날 씨에 無識흔 父母의 자식으로 티히여날 거은 안인가 흐는이다. 나의 이리케 죽게만 된 事情은 아마 兄님도 斟酌할 실 듯 흐웁니다. 사름의 부모가 되거던 자식을 가라쳐 社會에 나서게 만들고 子息이 되거던 부모의 教養을 밧다가 社會에 나서거든 父母에게 榮光을 돌니여 보니도록 活動할 것이 올시다. 나는 이것이 父母子息間에 當然히 行할 義務인가 흐는니이다.

兄님! 나는 兄님이 다 아실 듯흐야 말 안이 하는이다. 그러는 다맛 아버지님이 야속흔 것은 아즉도 氣力이 強壯하신 어른이 날따다 아모 것도 안이하시며 나에게 집안 生活의 全部를 썬먹기시고 아츰저녁으로 안 버러 온다고 惹端을 치님시니이다.

형님! 아버지님이 나를 社會에 나서게 못 민드셨는이다. 그럼으로 나는 七八年 夜學에 단이여 나의 實力을 補充하려 흐얏나이다. 十年 동안 어린 몸으로 집안 살님을 흐야 가며 밤에 이것흐는 것도 모게 흐시며 역정만 너히시니이다. 그럼으로 나는 죽삼나이다.

이 편지에서 ‘백화’는 근대 학문을 배워 사회에 진출하려는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식한 아버지는 집안 살림을 온통 ‘백화’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웠을 뿐 아니라 그나마 야학에도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화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무식하고 전근대적인 부모는 결과적으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뿐이다. 그런데 사실 위의 문맥으로 보면 무식한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욕망을 가로막는 부모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백화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딸자식까지 팔아넘기는 기성세대의 왜곡된 가치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백화’의 편지는 춘원의 ‘자녀중심론’을 연상시키기도 할 만큼 친구 세대의 가치관 충돌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유서를 편지로 남긴 ‘백화’라는 인물의 이름이 이 작품의 작자인 양건식의 호(號)라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자기자신을 소설 속의 등장 인물로 허구화<sup>52)</sup>시켜 놓고 당시 사회의 모순을 꼬집는 형식이기 때문이다<sup>53)</sup>.

52) 사실 양건식은 『귀거래』에서 자신의 창작과정과 그 작품의 유통을 보여주기도 할 만큼 문학에 대한 상당한 자의식의 소유자였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근대적 시간관념과 문학의 존재방식-양건식의 <귀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37 참조.

뿐만 아니라 ‘백화’는 아버지가 모(某)귀족의 첩으로 주려는 누이동생 ‘동순’을 부탁하고 있기도 하며 이 때문에 무력감에 시달리던 ‘나’는 사흘 뒤 백화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사회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910년대 서간을 비롯한 고백의 형식은 공적 담론을 지향하는 근대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런 모습은 1920년대 서간체소설에도 이어진다. 그토록 부지런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가난에 시달려야만 하는 이유를 사회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으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단’에 가입하는 ‘나’(최서해, 『탈출기』)의 모습이나 ‘大體 돌을 던질 者가 누구냐?’며 대결적인 화법으로 낡은 제도와 이념을 공격하<sup>54)</sup>는 ‘최정인’의 모습(염상섭, 『제야』)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3) 물론 당시 사회의 모순은 이런 모습만이 아니다. 돈 몇 푼에 의리를 저버리는 세태를 한탄하여 ‘황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네 살 먹은 아들과 백일이 채 못된 딸아이를 남겨두고 아내를 여윈 ‘월급쟁이’ 영수는 어머니마저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지난날 자신과 아버지의 큰 도움을 받았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 친구는 냉정하게 이를 거절하고 이에 격분한 정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보닌 편지는, 잘 보았노라. 그디도 알지로다. 나의 병 갓흐면 그디에게 구차흔 사정을 말홀 너가 아니로디, 늙으신 어머니와 엇지 홀 슈 업서 필경 말홀 바이, 일은 임의 동턴으로 나렸도다. 과연 그디의 요사이 사정이 그와 갓홀진디 나는 그디를 위흐야 동정의 괴도를 흐겠노라. 금전은 제왕의 제왕인 말은 임의 드렸노라. 그디는 다만 황금에만 종이 되고져 흐는가? 원흐노니 그디여, 그디는 신성호고 또흐 향긋로운 의리에도 종이 될지이다. 이에 나는 그디와 소미를 영원히 나스고져 두어 말로 그디에 붓치노라.” 백대진, 『絶交의 書翰』, 『신문계』4권 7호, 여기서는 김복순, 『백대진 소설 자료』,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소명출판, 1999), 568쪽에서 인용.

54) 황국명, 『한국 현대 서간체소설의 이념적 특성』, 『한국현대소설과 서사전략』(세종출판사, 2004), 127쪽

#### IV. 맺음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편지는 아주 오래된 사적(私的)인 글쓰기이다. 조선 시대의 편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대 이전의 편지는 사적(私的)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 우편제도가 도입되고 지식인들이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편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즉 편지는 근대에 이르러 개인적이고 내밀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근대’와 ‘국가’에 관련된 공적 담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대 지식인들은 몇 사람이 모여서 편지의 내용을 의논하고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발신자가 되어 그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도 한다. 또한 편지는 『독립신문』이나 『협성회회보』, 『민일신문』 등의 근대적 공공영역에 게재됨으로써 공적 담론 지향성이 더욱 강화해 간다. 이 과정에서 독자투고 형식의 편지가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편지는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담아내는 새로운 글쓰기 양식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1900년대 이후에 이르러 유학생이 늘어나고 조선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면서부터 편지는 더욱 일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들은 편지를 통하여 가족이나 친지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편지’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으로 내면화된다. 당시의 학회지에 실려 있는 편지는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가상의 수신인을 상징하고 이를 전체 유학생이나 국민으로 확산시키는 특정한 수법으로 ‘근대’와 ‘국가’, ‘국민’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편지가 일상의 영역은 물론, 예술의 영역과 여행의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글쓰기 양식으로 부각된 1910년대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이 시기의 편지는 개인의 절망과 번뇌 등과 국가와 민족 등의 관념이 착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개인적 절망과 번뇌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상상력을 무한히 확장하면서 개인과 공공, 여성과 아이, 근대와 국가 등의 문제를 포괄하여 더욱 특정화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착종이 우리나라 근대 고백담론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발견된 ‘편지’라는 글쓰기 양식은 소설에 포괄된다. 즉 편지는 소설 속에 포함되어 서사적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

고 나아가 '서간체소설'이라는 장르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편지가 지녔던 공적 담론 지향은 소설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광수가 자신의 사랑과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한다든지, 양건식이 강렬한 세대갈등을 소설 속의 편지에 담아내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근대 지식인의 주체형성과정과도 부합하며 1910년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 형성된 '서간체소설'이라는 장르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대에 새롭게 발견된 글쓰기 양식이 '편지'만은 아니다. 토론과 논설의 형태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토론이나 논설 등의 글쓰기 양식의 정착과정을 따져야만 소설의 근대적 위상도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주제어 : 편지, 서간, 서간체소설, 고백담론, 글쓰기, 우편제도

## 참고문헌

### 1. 자료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미일신문』, 『학지광』, 『太極學報』, 『개화기교과서  
총서』, 『학지광』, 『청춘』  
정교 저, 조광 편, 김우철 역주, 『대한계년사3』, 소명출판, 2004.

### 2. 참고논저

『강운 최승호 기증문화재③, 편지-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3.  
경일남, 『고전소설에 삽입된 서간의 양상과 기능』, 『고전소설과 삽입문예양식』,  
역락, 2002. 11-77쪽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기주, 『한말 제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1987.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노지승,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  
사연구』20, 2002. 351-379 쪽  
서순화, 『『독립신문』의 독자투고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 1996.  
우정권, 『한국 근대 고백소설의 형성과 서사 양식』, 소명출판, 2004.  
윤수영, 『한국근대 서간체소설 연구-형성과 구조변이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0.  
이상호 편저, 『近代郵政史와 郵票』, 全日實業出版局, 1994.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19-오백년 왕국의 종말』, 한길사, 2003.  
이재봉, 『근대적 시간관념과 문학의 존재방식-양건식의 <귀거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37, 2004. 103-127쪽  
이재선,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1975.  
조현실, 『서한체 소설의 서술 책략』,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하갑룡, 「1920년대 서간체소설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1985.

황국명, 「한국 현대 서간체소설의 이념적 특성」, 『한국현대소설과 서사전략』,  
세종출판사, 2004. 114-151쪽

Ian Watt, 전철민 역, 『소설의 발생』, 열린책들, 1988.

<Abstract>

## Letter Form and Confession Form - on the Confession Discourse in 1910's

Lee, Jae-Bong

A letter has a long history and is writing privately. As we see in the letters of the Chosun Dynasty, the letter before modern times was not beyond the private sphere. However the letter has showed a little different aspects since the modern times when the postal service was introduced and the intelligentsia began to use it. In other words, the letter has extended its sphere towards the concept including the public discourse related to 'modern' and 'nation' beyond the private one. For example, some intellectuals together discuss the content of a letter and become co-senders of it. Like this, the mail has strengthened its public function. In addition, the letter has more enhanced its function towards the public discourse by being published on the public journals such as *Tognip-shinmoon*, *Hyupsunghwoi Hwoibo*, or *Maeil-shinmoon* and so on. In the course of it, as the letter in the form of reader's contribution lively appears, the letter becomes a new form of writing which contains one's insistence or opinion.

In 1900's, as the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broad increases and Chosun Dynasty becomes a member of Universal Postal Union, the letter takes an opportunity to be usual. People can write a letter to their families or relatives and thus the letter becomes internalized into a new method of writing. The letters published on the learned journals of the time shows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letter. It makes to imagine 'modern', 'nation', and 'people' by the particular way of assuming the supposed receiver and expanding it to whole people or the students studying abroad. This situation

continued in 1910's, when a letter appeared to be prominent as a form of writing chosen naturally in art or in travel as well as in daily life. The letter of the time shows the mixture between the despair or agony of an individual and the concept of a nation or people. Thus the individual's despair or agony embraces the problems of individual and public, women and children, and modern and nation by expanding infinitely its imagination in time and space. So the letter forms an imagined specific community. This mixture is, also,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modern Korean confessional discourse.

A letter, the newly discovered form of writing, is included in a novel. In other words, a letter included in a novel strengthens the function of narrative and forms the genre, an epistolary novel. The letter's orienting towards public discourse is maintained in a novel. For examples, Lee kwang-soo understands his love and his duty on the people and nation in the same place. Yang Gun-Sik expresses the severe conflicts of generation via letters in a novel. These characteristic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urse of the formation of the modern intellectual's self. It is confirmed that these have some relationships with the genre, epistolary novel formed in 1920s.

Key Words : letter, epistolary novel, confessional discourse, writing, postal service